

##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80	78	64	76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56.5	31.75 / 26.5	42.75 / 21.5	43.5 / 21.75

##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 1 )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 2 ) 회
총 수험 기간	( 24 )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스터디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 3.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주제별로 작성해 주세요! (글자 수 제한 없음)
- **주제1~5 모두 작성해주세요!**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

저는 비법대생으로 25살부터 공인중개사로 일하다가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는 법무사에 대한 흥미가 생겨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전문직에 대한 열망과, 공인중개사 수험과목인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호기롭게 수험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 그해 11월 부터 학원에서 실강을 들었습니다. 이미 1순환 정규순환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밀린진도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하루에 8-10 강의를 들으면서 2순환 강의 전에 진도를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 2순환 정규 수업 전날에 그 진도에 대한 1순환 수업을 들으면서 전업수험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2개월 가량 시험이 밀렸다는 소식을 접하여 의도치 않게 2개월의 여유기간이 생겼고, 이 시간동안 과목당 서브노트와 OX지문 등을 통해 2022년에 법무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고,

첫 기득권인 2023년에 제 29회 법무사시험을 합격하여 총 24개월의 수험기간을 거쳤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1) 학습계획 수립법 및 하루 공부계획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집에 있으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것이 귀찮아서 끼니를 거를 정도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집근처에서 나홀로, 인강을 보고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나가면 보통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은 아침 8시 - 오후 9시에 집가는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전 수험에서도 오래 앉아있는 소위 엉덩이공부법이 도움이 된적이 많았기 때문에 순수 공부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하루에 실강+ 복습+ (1차때는 과목별 서브노트 작성) 2차의 경우에는 최신판례를 써보거나, 50점 정도되는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이 루틴이 지켜진것은 아니었지만, 팔목이나 손가락등에 보호대를 차거나 다리를 다쳐 반깁스를 차고 다닐때에도

1. 무조건 학원가서 실강듣기
2. 오늘 배운것 복습하기
3.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순환별로 교수님이 추구하는 공부방향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 2) 서브노트 활용법

저는 필기하는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1차 2순환 이후부터 틈틈이 숫자 등 암기가 필요한 과목에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헌법의 통치구조 / 상법 상 회사법/ 공탁법 상 출급, 회수방법 부분은 정말 아무리 외워도 암기가 안 되서 서브노트 효력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보다 박효근 법무사님의 민법 요약노트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았고 OX지문 해설이나, 판서노트를 만들어 당사자간 권리분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전체적인 서브노트를 만들기보단, 이해되지 않는부분의 이해도를 만들거나, 법조문(규칙)을 보려고 노력하였고

마무리에는 특강자료와 요약서를 보았지만 실제1차시험에서 제일 헷갈리는것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만들기보단, 질문하는 지문에 대한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현출하느냐가 관건이었으므로 답안지에 판례의 키워드를 써보는 연습을 많이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매주 100점 가량 답안지를 쓰거나 판례의 쟁점 및 키워드 등을 손으로 정리하다가 팔목이 안 움직일것 같  
다 싶으면 타자로라도 판례의 논거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과목별 공부법 / 취약 과목 극복법 / 과목별 학습 비중 / 과목별 추천 강좌 등

[1차]

#### 1. 헌법, 상법

- 헌법이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문태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비법대생에게 기본권, 통치구조 등 전부 생소했지만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문제없을거  
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헌법이 어려워서 OX자료와 마무리특강 자료를 기반으로 통치구조에 대한 서브노트를 채워나갔는데 암  
기과목이나 숫자가 많이 나오는 과목은 서브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상법은 차상명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비유를 통한 강의를 이해하기 쉬웠고 관련직 기출문제를 풀어도  
봤지만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나와서 고민인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 1과목을 고득점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법은 판례만큼 조문도 자주 본 것과 헌법과 같이 헛  
갈리는 숫자, 이해되지 않는 어음법 등을 서브노트에 정리해서 익숙해지는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2.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 민법 조문판례집, ox, 이동 시 민법요약노트

-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보는 방대한 양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서 민법은 강의를 제일 많이 반복하고  
이동할 때도 민법요약노트책과 OX책을 3회독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박효근 법무사님의 강의는 들어본 사람이면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도 깔끔한 판서를 통해 이해를 도와주시고 관련직 기출과 최신판례/ 미기출 전원합의체 등  
으로 지문을 구성하여 실전연습을 수없이 시켜주셨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덕분에 실전에서 민법에서 많은 실수 없이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은 1차 과목이 너무 방대한 탓에 학원커리큘럼과 10개년 기출만 보고 들어가서 점수가 아쉬웠지만 민법에서 고득점 한 덕분에 2과목은 넉넉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 민사집행법은 민법만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한봉상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민사집행을 분야별로 정확한 디션과 교수님 특유의 밝은 톤으로 반복해주셔서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요약서를 다회독하고 비슷한 강제집행절차를 비교/ 중요 조문을 풀이한 노트를 만들어서 생각보다 선방한 과목이었습니다.

- 상업등기법도 학원 커리큘럼과 10개년 기출 등을 위주로 공부했으나 실전에서 기출에서 본 지문은 정답지문이 아니라 상법지식으로 유추하여 풀이 하였습니다.

이 때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더 조문과 절차를 정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과목이었습니다.

### 4.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부동산등기법은 이전 수험과 겹치는 과목이라 자신있었고

오영관교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기본서 2회독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반복하였고 마지막까지 요약서를 3회독이상하여 예규와 선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선례와 예규에 빠져 부동산등기법 조문과 규칙을 그에 비해 등한시 한 탓에 실전에서는 제일 클리식한 조문, 규칙문제가 제일 헛갈렸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부동산등기법은 2차에서도 100점 과목이기 때문에 1차 때 최신 예규와 선례뿐만 아니라 조문과 규칙의 정확한 암기 및 연관성 등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탁법은 한봉상 법무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공탁이라는 제도가 너무 생소하여 처음시작할 때 부터 공탁의 종류별로 출급/회수 청구하는 방법을 권리관계처럼 정리한 필수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공탁법 특유의 한봉상 교수님의 암기포인트가 있는데 실제로 시험중에 지문을 보다가 교수님의 목소리가 귀에서 들려서 고득점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탁법은 마지막에 각 공탁별 출급/회수청구하는것을 정리해놓고 정리노트와 교수님의 OX책을 반복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2차]

#### 1. 민법 / 민사소송법

- 민법은 1.2차 공통과목이지만 2차시험은 큼직한 주요논점이 다수로서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는 1차 객관식 지문과 달리 근거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시험의 쟁점은 판례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요구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답인지에 현출하는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민사법에서 박효근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효근 법무사님께 민사법을 배우면서 느낀점은 이렇습니다.

0) 답안지는 최대한 많이 써보고 답안지 내는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1) 첫 기득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목차를 버리고

조문-판례-사안의 포섭을 넘버링으로 처리하라.

2) 법무사 2차를 공부하면서 최소 3개년 관련직 기출과 최신판례/ 미기출 전원합의체 판례를 안 보고 가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것은 펜을 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3) 한 문제에 치중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문제를 보고 점수 배점에 따라 내가 판례를 얼마나 쓸 것인지 고민하라.

4) 판례를 볼 때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키워드를 고민하고 최대한 판례를 그대로 현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라.

실제로 박효근법무사님의 말씀대로 스터디를 구성하여 예비순환부터 민사법 기출을 풀었는데 처음에 책이나 해설을 보고 50점 답안지를 썼을 때 3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박효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촘촘한 첨삭으로 답안지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판례의 근거는 풍성해지고, 기득권의 답안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이 갖춰졌을 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법도 정말 출중하시지만 박효근 교수님이 2023년 8월에 강의한 민사소송법 특강은 빠른 시간 안에 민사소송법 주요 논점을 훑어주시고, 매 시작마다 관련직 기출을 문제로 주셔서 풀어 본 경험으로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논점을 막힘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 2. 형법

형사법은 정말 생소해서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나홀로 두문자도 따보는 등 여러 공부방향을 고민했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형법은

구성요건별 필수노트를 작성해서 자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준 법무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조문과 구성요건 관련 판례를 촘촘하게 정리해주시고, 관련직 3개년 기출과 최신판례 등 자료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김민준 법무사님은 최근 시험출신 법무사셔서 확실히 수험생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가벼운 사례집을 통해 첫 기득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셨습니다.

수험기간에 김민준 법무사님의 경험담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조문과 규칙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철훈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매 강의 시작마다 이전 수업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개념과 관련된 판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철훈법무사님이 형사소송법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130페이지 가량의 요약집을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필수노트를 만드는 수고를 덜어주셨고,

매 순환마다 요약집을 보고 예습 및 복습을 하는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3순환에 최신판례/관련직 기출로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이를 풀어본 경험으로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민사서류

- 민사서류 과목은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시다만,

민사서류 및 소장작성은 김지안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사서류는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청구취지는 쟁점 별 청구취지를 다회독하였고 쪽지시험을 자주 본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은 데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원인의 형식만 갖추면 내용은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 중요판례나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정리해주신 것만으로도 민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류과목은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구에 따라중요한 판례를 직접 문제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번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민사서류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6.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등기법은 오영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과 규칙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연관성을 주로 공부했고 법전에 부동산 등기법 관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런 민법 조문을 함께 기재해서 더욱 더 풍부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영관 교수님의 사례집은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고 최신 예규 및 선례도 반영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소설했듯이 가볍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리반을 통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기간에도 감을 잃지않게 문제를 풀어보고 첨삭을 받으면서 부동산등기법을 틈틈이 공부할 수 있어서 2차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6.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 서류과목은 많이 써보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신청서류는 다양한 논점이 있더라도 첨부서류가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주제별로 2회 이상씩 보고 특이한 갑지와 첨부서류를 반복한다면 2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1차]

- 1순환& 2순환

- 저는 2순환 시작하기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나,

1순환이라하면 제일 의욕넘치는 시기이자 체력이 뽕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치는 의욕에 강의를 들으면서 촘촘히 필기하거나 모든 법리를 당장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훑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당시 하루에 8-12개까지도 인강을 들었는데 부담없이 들어서 크게 힘든것은 없었습니다.

2순환부터 실감을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던 내용같지만 주요논점이나 법리는 아직도 두리몽실했습니다.

다만, 1순환을 듣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은 시점에 2순환 수업을 들었기때문에 반복효과로 인해 수업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각인은 잘되었습니다.

따라서 2순환까지는 단기간내에 강의를 한번 더 보는 등 가볍게 내용을 반복하며 문제풀이를 하는것이 효과적인 공부법이라 생각합니다.

- 3순환

-> 3순환은 달마다 1차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시기이자 문제풀이를 넘어 과목 당 OX를 통해 지문을 더욱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특히 학원 모의고사는 실제시험과 비슷한 분위기와 제한시간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것이 포인트라 생각하였고 실제로 제일 필기를 열심히 했던 시기였습니다.

#### - 4순환

-> 의도치 않게 수험기간이 2개월 늘어나서 학원에서 과목 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매일 보았습니다.

제한시간에 맞춰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기전에 각 과목 교수님들께서는 OX나 다음날 진도를 미리 예습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빠르게 반복하고 다음날 시험 보는것이 마지막 굳히기 단계가 되어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하였지만 제일 남는 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1차시험 막바지에 최신판례 등 마무리 특강자료는 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을 끝내고 난 뒤에 느낀것은 생각보다 최신판례 비중이 크고 판례에 치중해다보니 기본적인 법조문이 더 헛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신판례와 단권화한 책을 주로 보고 이동시간 등 짜투리시간에는 서브노트나 법조문을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결국에 1차는 객관식이기때문에 내가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공부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제 합격수기를 통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2차]

##### - 동차반

2차 예비순환은 도중까지 1차 합격여부도 발표나지않고 일단 2차에 대한 맛보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가볍게들었습니다.

1차 합격 발표후에는 합격의 기쁨에 취해서 공부도 잘안되었고 비법대생으로서 처음 접해보는 민사/형사 소송법이 제일 어려웠으며

특히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답안지도 쓸 줄 모르는 상태라 공부가 정말 안됐습니다.

2차 마무리특강을 들으면서 더욱 더 멘탈의 붕괴가 왔지만 첫 2차시험은 혹시나 붙으면 어찌지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치렀습니다.

##### - 예비순환과 1순환

-> 2차 시험 후 제가 진짜 기득권이 되었다는 초조함과 내가 1년후에 잘 쓸 수 있을지 불안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이때 교수님들을 마주칠때마다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비순환때부터 민사법을 열심히해두어야 나중에 고생안한다는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이 당시부터 2순환까지는 학원 강의를 마치면 복습도 강의시간만큼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빈 답안지를 어떻게 채워야할지가 제일 어려웠는데 교수님들께서는 답안지를 많이써봐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법무사기출 민법 10개년을 써오는 스터디를 하였고 1순환 초반부터는 민사소송법도 함께 써보았습니다.

처음에 답안지를 작성할때는 책을 보고써도 50점기준 4쪽가량의 답안지를 채우는데 3시간이 걸린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개념과 판례를 글로 현출하는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여기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 질문에 대한 OX를 확인하고
2. 유려하게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책을 보거나, 해설을 보고 쓰는 연습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예비순환부터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조문-판례-사안의 포섭을 큰 줄기로 하여 학원강의와 더불어 일주일에 답안지를 2개이상을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2순환

-> 이때에는 예비순환때부터 답안지를 써보는 연습을 하다보니 답안지가 깔끔해졌습니다.

민사법에 대해서는 예비순환때부터 답안지를 써왔으므로 2순환부터 민사법은 정규수업에 모의고사를 보는것으로 대체하고

이후 시간에는 형사법과 서류과목에 집중했습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달리 개념에 대한 판례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1순환 중순 3순환 초반까지 개념에 대한 판례키워드 등을 틈틈히 정리하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형법의경우 횡령이란, 보관자의 지위란, 보호가치있는 신임관계에 대한 판례 정리 등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서류과목은 기출과 사례집으로 연습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굵직한 주제에 대해 몇번써보면 등기법상 첨부정보 혹은 주제별 청구취지 등이 반복되므로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 3순환 및 정규수업 이 후

-> 3순환은 매일 아침마다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기보단 마지막까지 내가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3순환까지 서류과목을 각 30개 이상 써보았다면 서류는 일주일에 한번씩 보아도 기억에 남기때문에 3순환이 끝난 이 후에는 주요과목에 집중하였습니다.

3순환까지 들으면 웬만한 자료는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때로 돌아가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1순위는 각 과목 당 최신판례 (중요 전원합의체 포함)

2순위는 과목별 서브노트 및 마무리 특강자료를 활용하여 단권화 시킨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날이 다가올 수록 모든 자료를 다 들고갈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볼 자료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는 학원의 마무리특강 자료와 최신판례는 시험 직전까지도 보았고 마무리특강자료에 관련판례나 헛갈리는 쟁점은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2차는 내가 답안지를 얼마나 써보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답안지도 많이 써보았지만 3순환까지 모의고사를 보면 논점맞추기, 판례를 얼마나 현출하는지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쓰는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몇몇 실수를 제외하고는 시간 내에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쓰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험생의 위치에서 각 자 자신이 할 수 있는일과 해야만 하는 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는다면 언젠가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나의 슬럼프 극복방법

- 저는 학원에서 좋은 스터디메이트들을 만나 각자 좋은 자극제가 되고 서로 이끌어주어서 거창하게 슬럼프라는 건 딱히 없었지만 저 스스로 지구력이 약하다는 걸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시험 50일 전까지는 일요일에 쉬면서 부족한 수면시간을 보충하거나 하루종일 게임도 했고,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오후 7시 이후부터 약 3시간가량 치킨에 맥주도먹고 카페가서 수다도 떨면서 열심히 하는 저에게 쉬는시간 겸 보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동안 정말 아무생각 없이 아침에 나와서 학원에서 하란대로 공부하고, 복습하고 놀았습니다.

제 자신만의 하루 목표치를 끝내놓고 쉬는거라 놀 때도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없었고 그냥 내일도 열심히하자 라는 생각했습니다.

수험기간 내에 많은 생각이 들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끝도 없다고들 합니다.

저는 평소대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지치면 공부이외로 에너지를 보충하는것도 또 하나의 수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및 수험생에게 하고싶은 말

- 항상 밥 잘 챙겨드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법무사 수험은 장기전이라 지칠때도 있지만 아프면 아픈대로 서럽고 공부시간 뺏기는것이 타격이 큽니다.

저는 수험기간 중 코로나도 겪었고, 다리에 반깁스도 했었는데 아파서 공부를 못하니 뒤쳐지고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몸을 추스리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 마음잡는것이 힘들었습니다.

별탈없이 페이스조절 잘하는것도 수험의 꿀팁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 2차를 시작할때에 자신에게 맞는 펜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트스트림 0.7mm로 공부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한편 몇몇 사람들은 법무사 2차는 학원의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합격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서 합격했습니다.

학원이 시험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격수기를 보고계신 수험생분들도 밥먹는 것처럼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것이 당연해진다면 후에 법무사로서 만나뵙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얼굴 마주치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준 법무사 단기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첫 기독권에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주신 박효근 법무사님, 최철훈 법무사님, 오영관교수님, 김지안 법무사님, 김민준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는 2024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